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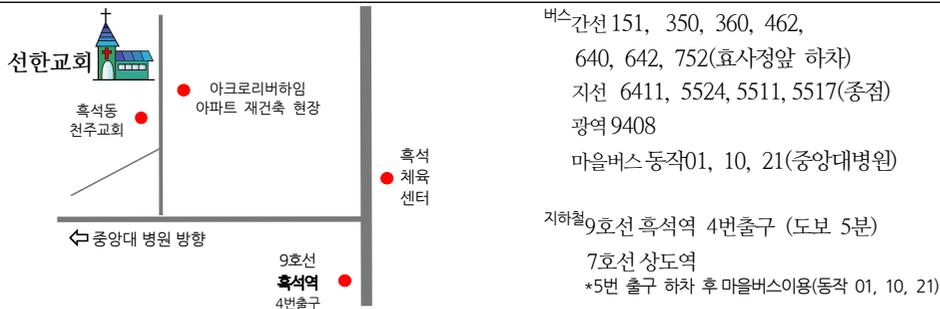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예배및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 리 아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전임전도사 김진만 전임전도사 권인혁 협력전도사 오효남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이금주 (M국)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유 신 응 (집사장) 김 대 희 박 희 태 조 윤 익 한 배 선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천사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송구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2)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원	인도자
찬양과 경배	36장 (통일찬송가 36장)
교독문	교독문 39번(시편 95편)
찬양과 경배	191장 (통일찬송가 427장)
예배기도	(1부) 류은영 집사 (2부) 한배선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빌립보서 1:12~26
설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임춘배 목사)
헌금드림	박영근 배한승 손영삼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도	임춘배 목사
송영	드림성가대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 예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말씀봉독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여호수아 23장) 임춘배 목사
------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일 정 : 10월 23일 ~ 11월 15일 오전 5시 30분
수험생 : 이우정(이기환, 조덕순), 이하나(안기연)
- 제 직 회** 다음 주일(5일)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회 월례회** 일시 : 11월 7일(화)
장소 : 선한교회
- 사역자 일정** 김진만 전도사 휴가 일정
일시 : 30일(월) ~ 3일(금)
- 예배시간 및 장소 안내** 주일 1부 예배 : 오전 9시30분 /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시 (나사렛실)
청소년부 예배: 오전 9시 50분 (벧엘실)
수요예배: 7시30분 / 금요기도회: 8시30분
새벽예배: 5시30분 (본당)
- 정오기도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준비 안내 및 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북강서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서초·인천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0/29	10/30	10/31	11/1	11/2	11/3	11/4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1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찬송 : '내가 깊은 곳에서' 364장(통 482장)

본문: 야고보서 5장 13~18절

말씀 : 기도를 통해 받은 응답들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기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이론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릎을 꿇다 보니 무릎에 군살이 박혀 낙타의 무릎처럼 된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기도에 대해 강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텃줄과도 같습니다. 뱃속 아기가 텃줄을 통해 엄마의 생명과 감정과 사랑을 전해 받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력,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줄과 같은 기도를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에 기름기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줄과 같은 기도의 끈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주님 주시는 생명력과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도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의 삶을 강조하되 기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야고보서의 시작과 마무리는 모두 기도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과 마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순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흠어진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가 그토록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도 그 아픔과 고난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다시' 기도하는, 즉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대충 해보고 쉽게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승부수를 띄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서로 마음을 모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1:12-26)

서론

사도바울은 복음의 진전 때문에 감옥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론

1. 복음의 진전

- (1) 그의 매임이 새로운 전도의 기회가 됨(13절)
- (2)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많은 이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됨(14-16절)
- (3)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생각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음(17절)
- (4)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다.

2. 교훈

- (1)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자.
- (2) 나로 인해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자.
- (3) 주님을 위해 매이게 된 것을 기뻐하자.

결론

사도바울처럼 우리의 기쁨을 복음 전파의 진전에 두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1부예배기도	류은영 집사	김혜용 리더
2부예배기도	한배선 장로	김대희 장로
헌 금 위 원	박영근 배한승 손영삼	심지숙 안현미 오성애
안 내	강북, 강서셀	서초, 인천셀

찬양	나 말은 본분은 (찬송가 595장/통일 찬송가 372장)
통독	여호수아 21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중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아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 족장들의 요구에 따라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성읍과 들을 취해 그핫과 게르손, 므라리 자손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그들이 거할 48개 성읍과 들을 주십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땅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생각해보기	
1	<p>레위지파의 성읍</p> <p>(1)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었던 레위 지파가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민35:2)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 먹일 들을 요구함</p> <p>(2) 이에 백성들로부터 총 48개의 성읍과 그에 딸린 들을 얻음</p> <p>(3) 그핫 자손 중 아론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서 13성읍을, 남은 그핫 자손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에서 10성읍을 받음</p> <p>(4) 게르손 자손은 잇사갈, 아셀, 동편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성읍을, 므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각기 할당 받음</p> <p>(5)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창49:7)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p> <p>(6) 주님의 일에 모두가 함께 동역하며 이웃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자.</p>
핵심 단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구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이 강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가나안 족속의 멸절 명령을 지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신 7:9).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아 보이는 때라도 낙망하지 않고 인내로써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남김 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보소서 주님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208장/통 289장)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독일 현대 작가 막스 프리쉬의 「호모 파버」라는 소설에는 무신론자이며, 신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나름대로 순조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끊임없는 파도처럼 밀려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주인공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면 맞닥뜨린 문제들은 모두 과거 자신이 선택했던 일들의 결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일의 원인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해 그저 ‘그것은 우연이야!’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주인공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 대비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는 결코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이혼한 전 아내가 낳은 딸과 유람선 여행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후에 그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 아메리카 열대우림에서 사고를 당해 응급차에 실려 가는 중에도 자신의 잘못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우연이야!’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p> <p>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지는 않나요? 원인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나요?</p>
말씀 나누기	아모스 1:13~2:5
목상포인트	<p>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이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암몬의 지나친 탐욕, 모압의 지나친 분노의 복수는 모두 심판을 자초합니다.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준수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에 미혹되었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탐욕과 분노를 제어하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유다의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나요?(2:4~5)
적용하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과 멸시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각각 어떠한가요? 말씀에 비취 볼 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욕심과 혈기와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544장/통일 찬송가 343장)
통독	사사기 1장
본문 내용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을 두고 모두들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는 혼자 나서지 않고 시므온과 함께 나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유다 자손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차례로 싸워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던 중 갈렙은 기랏 세벨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공약합니다. 웃니엘이 그 땅을 취하고 갈렙의 딸 약사를 얻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승리의 보고 속에, 불완전한 정복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요셉 족속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베엘을 취하는데, 여기에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뒤이은 다른 지파들의 전쟁은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한 미완의 보고가 반복됩니다.
생각해보기	
1	<p>가나안 완전 정복의 실패</p> <p>(1) 여호수아 사후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족속 토벌의 선봉이 되어 할당된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공격했지만 철병거로 무장한 유다 골짜기에 있던 가나안 거민만을 쫓아내지 못함</p> <p>(2) 유다와 시므온 지파와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게을렀던 다른 지파들이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혼합되어 동화되어 감</p> <p>(3)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싸움을 회피하면 할당된 기업(주어진 축복)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p>
핵심 단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 이것은 본서의 서론적 표현으로서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표현은 "모세가 죽은 후에"(수 1:1)라는 말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전에 모세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호수아는 110년을 향수하였는데, 그동안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통치권과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직임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 대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여호수아가 죽고나자 그를 이을 적당한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였다. 사사기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정치적 배경으로 하여 기록되었다. 즉 여호수아 사후 강력한 통치자가 없던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과 미처 정복치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였다. 그러한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한 이들이 곧 사사인 바, 사사기는 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통일 찬송가 199장)
통독	여호수아 22장
본문 내용	가나안 정복과 토지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전리품을 풍성하게 나누어 줍니다. 요단 강 동편으로 가던 르우벤 자손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강 가에 돌로 큰 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단을 쌓은 이 일을 우상 숭배로 오해해 분쟁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의 분노를 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쌓은 단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후대에 교훈하기 위해 세운 증거의 단이라고 해명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말을 들은 요단 서편 지파들은 그들의 동기가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이 일을 통해 온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가 됩니다.
생각해보기	
1	<p>요단 강가에 세운 제단</p> <p>(1) 가나안 정복과 지파별 기업 분배가 일단락되자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귀환함</p> <p>(2) 그들이 돌아가던 중 요단 강가에 이르러 거기에 큰 단을 쌓음</p> <p>(3)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오해로 분개하여 그들과 싸우기 위해 실로에 모임</p> <p>(4) 조사단을 파견한 결과 두 지파 반의 해명으로 오해가 해소되고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송함</p> <p>(5) 비록 선한 목적의 일이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염려하게 하고 신앙 공동체 내에 오해와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피하는 지혜를 갖자.</p>
핵심 단어	'브울의 죄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 머물 때 당시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 모압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게 된 범죄를 가리킨다. 결국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염병으로 죽게 되었다(민 25:1-9)). 바로 그 사건 당시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진중까지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자(시므리)와 그 여인(고스비)을 거룩한 분노로 함께 죽이니, 곧 하나님의 염병 재앙이 그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사건은 그 누구보다도 비느하스의 가슴속에 생생히 기억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는데, 그렇기에 지금 또 다른 단(壇)을 쌓은 두 지파반의 행동에 대해 가장 먼저 그 바알브울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찬송가 499장/통일 찬송가 377장)
통독	여호수아 23장
본문 내용	한편,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절대 관계를 맺지 말고 혼인으로 얽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생각해보기	
1	<p>여호수아의 최후 훈계</p> <p>(1)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백성의 대표들을 세겜으로 부름</p> <p>(2)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킴</p> <p>(3) 백성들에게 율법준수를 권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섬기고 이방인과의 교제와 혼인을 금하고 불순종과 배교에 따른 형벌을 경고함</p> <p>(4)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위에 굳게 서고 악한 일을 멀리하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p>
핵심 단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시작하는데,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선에서 친히 진두 지휘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다. 일찍이 모세는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싸우실 것을 말하였는 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싸우셨던 것이다. 즉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 함성으로 무너지고(6:20), 기브온 전투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10:11), 태양이 중천에 머문 일(10:12,13)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는 생생한 반증에 다름 아닌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	--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통일 찬송가 342장)
통독	여호수아 24장
본문 내용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모여 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 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역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이스라엘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큰 돌을 취해 그 고백의 증거로 삼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산 백이십 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음을 증거합니다.
생각해보기	
1	<p>여호수아의 고별사 및 죽음</p> <p>(1) 앞장에 이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함</p> <p>(2) 최종적으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한 여호수아의 요구에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함</p> <p>(3)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15절)</p> <p>(4)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전히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재차 다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언약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 증거를 삼음</p> <p>(5)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음</p> <p>(6) 결단의 시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이순간이 마지막 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p>
핵심 단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 임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즉 그는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어중간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이방의 우상이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히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였던 것이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중립(회색)지대란 있을 수 없다. 또한 양쪽 다 택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마 6:24).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곧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고후 6:14-16).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와 종교는 유일신교이지, 결코 일신교가 아닌 것이다. 즉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도 하나의 신이며, 그중 비교적 뛰어난 신이란 의미가 아닌 것이다. 오직 '여호와' 만이 홀로 참신이시고, 다른 나머지 모든 우상들은 한낱 돌이나 나무, 쇠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적 유일신교인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	--